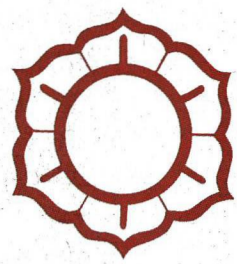


불교총지중은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교주로, 음마니반메
흠을 본존으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
교화를 표방한 재가종단입니다.



총지중보

2003년
2월 1일
토요일
제41호

이 달의 종조법설
진리란 마음에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이 마음
을 깨치면 곧 진리를 깨친 것이다. 자기 마음을
알지 못하고 다시 빛 일체 사물을 알리고 구할
것인가. 다른 이의 마음을 찾고 알리고 하기 이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알아야 한다.

발행인: 법공 편집인: 황의수 인쇄인: 김준배

www.chongji.or.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사항을 준수한다. 구독신청: (02)552-1081

신년하례법회 전국 스승님 힘찬 출발 다짐

종령 법어 "화합과 협동을 제일 원칙으로 삼을 것을 당부"

하정 종사 퇴임식도 함께...종단 발전과 중생교화의 대 사명 잊지 않고 용맹정진 다짐



특정 종령은 법어를 통해 "올 한해는 화합과 협조단결로 종단의 새로운 기운을 드높이자"며 "특히 화합을 저해하는 비방하는 말, 꾸민 말, 나의 허물을 보지 않고 남의 허물을 말하는 함담을 줄이고 새해에는 기쁜말, 좋은말, 선한마

음이 가득한 한해를 만들자"는 법어를 내렸다. 또한 법공 총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해 대 서원불공을 원만하게 회향하였습니다. 새해 불공에 각자 세원단 발심을 끝까지 잊지 말고 수행자의 자세를 잃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 신년하례법회를 마치고 법성사 주교 하정종사의 퇴임식을 가졌다. 하정 종사는 퇴임사에서 "30여년 동안 교화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부처

님의 보살핌과 가지력 이었으며 또한 원로스승과 동료 후배들의 사랑과 도움으로 큰 대과 없이 마칠 수 있었다"며 "퇴임은 마침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출발이며 앞으로 기로스승으로서 품위와 승직자로서의 덕행을 더욱 깊고 닦아 모범되는 선배스승으로 거듭나겠다"고 퇴임사를 하였다. 이날 하례법회와 하정 종사 퇴임식을 마치고 각 분과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13대 집행부 구성을 하여 총무부장 인천 시범사 주교 지성 정사, 재무부장 덕화사 주교 대원 정사, 교정부장 총지사 주교 법등 정사를 각각 선출하였다.

「종조전」건립, 연내 마무리 될 전망

종조탄신 97주년 기념사업 일환...
종조님 진영 봉안, 유품·자료 전시 계획
지난 1월 16일, 관련 2개 분과위원회에서 설계 검토

종조 원정 대성사의 탄신을 봉축하는 법회가 지난 1월 29일, 전국 사원에서 스승님과 교도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봉행되었다.

이번 종조탄신일은 종단적으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종조전건립이 연내에 마무리 될 전망이다. 종단은 이번 종조탄신97주년의 기념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착수했던 '종조전 건립불사'를 완결히 마무리 하기로 하고 앞으로 종조관련 모든 행사를 종조전에서 봉행하기로 하였다.

총리원(원장 법공 대정사)은 종조탄신일을 앞두고 지난 1월 16일 '종조전 건립위원회'와 '전당건설위원회'를 소집, 종조전 건립에 대한 설계를 심의하

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소집된 상기의 2개분과위원회는 1월16일부터 17일에 열린 종단분과위원회 전체회의의 일정 가운데 하나로 개최되었는데, 이날 회의에서 설계내용을 일부 변경하고 다음 회의에서 인찰을 통해 업자를 선정하기로 결의하였다.

종조전건립은 종단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난 1월 21일, 종령 특정 대성사의 대담에서 밝힌 대로 '종조님의 공덕을 찬양하고 그 뜻을 기리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고, 무엇보다 그분의 위대한 가르침을 계승하는 데에 큰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였다.

종조전 건립에 대해 특정 대성사께서는 "법제자로서 당연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후대들이 종조님의 가르침과 수행의 정신을 잊지 않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행적을 길이 후대에 물려주고 널리 알려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종조전을 단속히 짓는 것만으로서 그치지 않고 종조님의 정신과 수행실천을 배우고 따르도록 할 생각입니다. 또 종조님의 유품을 정리하고 전시하여서 후대들에게 장중 당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중생교화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모습을 보여 주고 싶습니다. 종조전이 연내에 건립되면 종조탄신일·별도절·성도절·참교절 등의 종단 주요불사를 종조전에서 여법하게 올릴 계획입니다. 앞으로 신규 스승교육이나 종무원교육에서 종조전 참배를 의무화하고 교도들이 자유롭게 언제나 항상 자유롭게 참배할 수 있도록 개방할 생각입니다. 종조전을 전적으로 관리하! 는 전담부서도 돌 생각"이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관련인터뷰 4면) (관련특집기사 5면)



총무부장 지성 정사



재무부장 대원 정사



교정부장 법등 정사

지난 1월16일 오후 전국스승님들이 회를 봉행하였다. 참석한 가운데 총지사에서 신년하례법 유가삼밀로 진행된 신년하례법회에서

죽비소리

이름은 비구를 빌려서 가람을 더럽히려
모양은 사문의 법의를 걸치고 신시(信施)를 받으며
지켜야 할 계는 잊어버리고
지켜야 할 울의도 다 버려 버렸네.
제물꺼서 싫어하시는 일 서슴치 않고 행하며
보살들의 교뇌에도 아랑곳 없네
희희낙락 노닥거리며 우스개 소리와
입에 발린 헛소리, 속이는 말로
세월만 헛되이 보내고 있구나.
좋은 벗 멀리하고 어리석은 자 친근하여
선근은 뿌리내리지 못하고 악행에만 힘쓰네.
이익(利養) 얻기 위해 자화자찬하며
덕있는 스승 보면 질투심이 불꽃처럼 솟아오르네

- 흥교 대사 참회문 중

불교총지중 신규 예비스승 10명 자격심사 통과 진언수행자로 중생교화 흥법포교의 큰 발심 일으켜

지난 1월22일 불교총지중 신규 스승 대상자 가운데 인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10명이 선출되었다. 이들은 2월11일부터 7개월간 교육을 통해 스승의 사명, 총지중 교상과 사상, 밀교사상과 수행체계, 계율 등 총 11개 분야에 걸쳐 강도 높은 교육이 실시된다.

법공총리원장은 "이번 신규스승은 과거와 달리 스승의 자질함양을 위해 철저한 계율, 스승으로써 품성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킬 것"이며, 특히 불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 총지중의 교리와 수행방법체득, 교화에 입하는 자세와 스승의 사명감 고취, 승직자로서의 자질함

양, 중무행정과 사무원영 능력 배양, 교화 방법과 포교방법 체득 자질함양의 교육에 중점을 둘 것이다"고 교육계획을 밝혔다.

이번 신규스승후보자들의 학력은 박사학위 취득자에서부터 고졸의 출신까지 다양하며, 서울경인교구 4명, 부산경남교구 2명, 대구경북교구 2명, 충청전라교구 2명이다. 연령은 40세 초반에서 50세 초까지 나타나 평균 대학원출신의 40대 중반으로 나타나 젊은 스승이 탄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스승 후보자들은 다음과 같다.

서울경인교구 이중석(46세), 김홍배(41세), 황보삼민(46세), 이희자(46세), 부산경남교구 장선욱(43세), 박인관(53세), 대구경북교구 최명현(48세), 광노주(48세), 충청전라교구 유성형(47세), 이옥진(44세)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는 교도가정에 바로자나 부처님의 가지원력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종조님이 세운 정통밀교의 큰 뜻을 토포히 세우기 위해 승단은 진언수행에 흐트러짐 없이 용맹정진 하겠습니까.

종령
총리원장
중앙총의회의장

총무부장 지성
재무부장 대원
교정부장 법등

서울경인교구장 해정
충청전라교구장 법수원
대구경북교구장 우송
부산경남교구장 정정진

불교총지중
The Buddhism chongjijong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 2동 776-2 전화 : (02)552-1080~2 / 전송 : (02)552-1082 http://www.chongji.or.kr

사설

신규스승 교육에 붙여

이번 달 11일부터 신규스승양성을 위한 시무교육이 시작된다. 그동안 수차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10명의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실시될 이번 교육은 그동안의 종속교육에 대한 병폐를 시정하고 6개월에 걸친 집중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동안 본종의 스승교육은 인원확보에 급급한 나머지 평소의 수행능력에만 치중하여 스승을 선발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베풀지 못한 것이 있었다. 일반인의 입교를 유도하고 입교하는 교도를 단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스승 자신의 수행력 이외에도 이들을 체계적으로 이룰 충실한 교육이 필요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교육을 계기로 그동안 스승양성교육의 미흡했던 부분을 대폭 수정, 보완하고 수행력 이외에도 체계적인 불교교리를 교육시켜 사회 일반인이 쉽게 불교에 접근하고 또 밀교의 수승한 교리도 이해할 수 있도록 스승의 자질향상을 현저하게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교상(敎相)과 사상(事相)의 확립이 시급하다

본종의 창종년월이 어느덧 세월을 더해 금년으로 총기 32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원종종조께서 정통밀교의 중흥을 기치로 내걸고 준제법으로써 교회의 첫발을 내디딘 이후 세수(歲數)를 다하시고 개산 7년여만에 입적하시므로 그 발전의 속도가 급격히 완만해졌다.

이제 본종이 사람으로 치면 30세의 어엿한 장년으로 성장한 이상 종단발전의 핵심이요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교상과 사상에 대한 확립이 다시 한번 점검되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시대의 급격한 변화에 맞추어 교상과 사상을 다시 정립함으로써 정통밀교종단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드높이고 교세를 확장하여 이 땅의 무명중생에게 밀교의 수승한 가르침을 넓고 빠르게 펼칠 수 있어야 한다.

교상과 사상 확립의 선결조건으로서 먼저 본종의 교주인 비로자나불에 대한 해석과 이를 중심으로 하는 수행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준제법을 수행과 교회의 근간으로 삼고 그 근본은 비로자나불에 두고 삼보에 대한 귀의와 이에 대한 수행법이 부가됨으로써 비로자나불과 관세음보살의 관계를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역삼노인복지센터 3년간 재 위탁

주간보호센터 황진수 과장 서울시장 표창 수상

강남구청은 지난 11월 28일 복지센터 재 위탁 선정 심사를 하여 향후 3년간 복지센터를 불교총기종 사회복지재단에 재 위탁하기로 결정하였다.

재 위탁 심사는 위탁운영 3년 동안의 복지시설 운영실적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재평가하는 것으로 이번 재 위탁 선정으로 보다 발전적인 복지센터 운영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12월 30일 복지센터 황진수 과장이 서울시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서울시는 2002년 3월 시청, 구청, 협회 관계자로 구성된 평가반을 조직하여 서울시 소재 전체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64개소의 시설중 16개소가 1등급에 선정되었으며, 그 중 역삼노인복지센터를 포함한 최우수 9개 시설 담당직원에 대하여 서울시장 표창이 수여되었다.

이번에 서울시장 표창을 수상한 황진수 과장은 지난 1999년 8월부터 현재까지 주간보호센터 담당 과장으로 차매, 중풍 어르신들을 모심어

있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어르신들은 물론 가족들과 프로그램 진행 자원봉사자들한테도 모범이 되었다.

또한 지역사회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타 주간보호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어르신들의 교류 및 연합행사를 주관하는 등 진정한 사회복지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정스승님 퇴임... 지난 1월 16일 부산 법성사 주교 하정스승님 퇴임식이 있었다.



지난 1월 6일부터 시작된 신년불공에 전국스승님과 교도들이 사분정진에 들어갔다. 사분정진은 새벽·오전·오후·저녁 네번에 나누어 올맹정진을 하는데 불교 총기종은 매년 새해 1주일간 사분정진 불공을 하는 전통이 있다.

법장원 연구원

이중석 박사학위 취득



본 종단 법장원 연구원인 이중석(화령)씨가 지난 2002년 가을학기 '밀교비로자나불의 연구' (지도교수 서운길 박사)란 논문

이중석 연구원은 "최초로 밀교의 교리와 수행체계를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밀교의 비로자나불은 한 마디로 불교의 근본정신을 반영한 진정한 법신으로서 우리에게 성불의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중석 연구원은 불교총기종 종대비생 출신으로 전인수행생활과 학업생활을 병행하여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성과를 보였다.

논문 개요

密敎毘盧遮那佛의 研究

이 논문은 법신불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비로자나불을 밀교적 관점에서 연구한 것이다.

이 논문은 인도의 고대신화에 등장하는 Vaishnava의 연원을 밝히고 광명을 상징하는 비로자나 석존의 광명의 이미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화엄의 비로자나불의 등장 배경과 밀교의 비로자나불인 대일여래에 대한 여러 가지 사상들을 교리와 수행의 양면에서 연구했다.

특히 밀교에서의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하는 즉신성불의 이론과 실천체계에 대해 계통을 세우고 만다라와 비로자나불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중점으로 삼았다.

이 논문은 밀교가 성립되기 전까지는 관념론에 가까웠던 법신비로자나불을 밀교의 등장 이후 어떻게 이를 수행자의 인식범위 안으로 끌어내려 수행자 자신과 법신비로자나불을 동일시하는 차원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에 대한 과정을 밝혔으며

실상지신(實相智身)과 변화법신(變化法身)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불보살과 명왕, 천 등의 계통을 확립하고, 여기에 더하여 등류법신(等流法身)이라는 개념으로까지 법신의 개념을 확대하여 수행자와 법신의 일치를 시도한 밀교의 핵심교리를 심도 있게 분석했다.

비로자나불의 세계가 다른 아닌 "如實知自心"에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확립하고, 자신을 여실히 깨닫는 방편으로서 아자관(阿字觀), 오자엄신관(五字嚴身觀), 오상성신관(五相成身觀) 등 밀교 독자의 수행체계를 보여줌으로써 삼밀행과 만다라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구체적인 실천체계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밀교의 교리와 수행체계를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은 이 논문이 최초로 논자는 밀교의 비로자나불은 한 마디로 불교의 근본

종립학교 동해중

장학금 전달

법공 통리원장은 오는 2월 20일 제 33회 종립 동해중학교 졸업식을 맞이하여 총기종 장학금을 전달한다.

동해중(교장 강경중)은 평소 불교인생생활과 학업성적 그리고 학교생활에 모범을 보인 동해중학교 불교반 졸업생 윤진석(3학년1반), 홍성욱(3학년4반), 문선호(3학년7반), 백인선, 고일환(3학년8반) 5명에게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 일백만원

계미년 첫 49일

불공 입제

불교총기종은 오는 19일 계미년 첫 49일 불공 입제에 들어간다.

상반기 49일 불공은 자녀불공으로써 바른 자녀, 훌륭한 자녀, 성장하여 사회에 주역이 되도록 하기 위한 자녀 불공이라고 한다.

이번 상반기 49일 불공은 전국 사원과 스승 교도들이 참석 2월 19일 입제하여 4월 8일 회향 불공을 한다.

정신을 반영한 진정한 법신으로서 우리에게 성불의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

또한 논자는 본 논문을 통하여 법신불의 변천과 그것을 둘러싼 사상적 배경을 구명하고 비로자나불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김으로써 성불에 이르는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실천체계를 드러냄은 물론 이를 통하여 불타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불교의 근본취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각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李重碩 약력
佛名: 華靈
1958년 경북 영일생
한국의국어대학교 중국어과 졸업
(주)뉴스컴 대표이사 역임
불교총기종 법장원연구원
동국대학교 역경원 역경위원
동국대학교대학원 불교학과 석사
과정 수료
동 대학원 불교학과 박사과정 수료(철학박사)

우리 모두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눕니다

2002년 12월 18일부터 2003년 1월 17일까지

Table with donor names and amounts. Columns include names like 박병락, 신동희, 양재욱, 강길순, 조수자, 김안식, 박승삼, 정길오, 최영혜, 강순란, 김순이, 강문석, 강한빛, 무명씨, 박상순, 박홍열, 손정자, 안금순, 여래심, 이창남, 진관사, and amounts ranging from 5,000 to 600,000.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기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의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에 소속사원명을, 통신판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7668610
- 우리은행: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기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기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552-1083, 3452-7485

현목의 세상읽기



서울시청 광장에 얽힌 기억

지금부터 37년전, 그러니까 1966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비록 오래된 일이지만 내가 직접 겪은 일이라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나는 서울 을지로6가에 있는 동대문국민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학교 흔적도 없어지고 대신 그 자리에는 대형의류도매상가가 들어섰습니다. 혹 아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동대문운동장 맞은 편에 덕수상고가 있었고 그 뒤편, 예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쪽으로 있는 일본식 민지 시절에 지어진 학교가 있는데 바로 그 학교입니다. 운동장 한켠에 노천수영장이 있었고 운동장 동쪽으로는 상당히 오래 묵은 고목 두그루가 버티고 있었지요. 하지만 70년대 들어 서울의 사대문안에 있는 학교들이 그렇듯이 내 모교도 학생이 없어 마침내 폐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3학년때든가 4학년때든가, 어쨌든 그 무렵부터 구로동에서 을지로까지 통학을 했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상당히 먼 거리인데요, 그때 그리 많은 편도 아니었던 시내버스 또는 전차를 두 번이나 갈아타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며 통학을 한 사연이 있지요.

원고하니, 61년 5월 박정희를 비롯한 일단의 일본군 출신의 군인들이 무력으로 정권을 찬탈한 뒤,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 서울의 변두리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그런 일련의 정책적 배려로 을지로에서 살던 우리는 구로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때가 아마 63년쯤 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사를 가서도 그냥 동대문국민학교까지 다녔습니다. 웬지 낯선 동네의 낯선 학교 다니는 것보다는 고생이 되더라도 먼거리 통학을 하는게 낫겠다 싶어 내가 우긴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다니던 중, 바로 66년 봄이던가 가을이던가 미국대통령 존슨이 이 남한에 왔습니다. 64년, 미국은 베트남전쟁에 개입하였고 남한은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그 더러운 전쟁에 병력을 파견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내 큰형님도 그 바람에 청룡부대 1진으로 65년 여름, 베트남으로 떠났습니다. 애매한 전쟁에 이 땅의 고귀한 젊은 청년들의 목숨을 바치는 상황에서 존슨이 서울에 왔고 그가 오던 날 서울에는 비상경계가 내려졌지요. 내 기억으로는 그 날 학교도 이르게 파했던 것 같습니다.

일찍 파한 영문도 모르고 집에 가느라고 버스를 기다렸는데 좀체 오질 않더군요. 아무리 기다려도 차가 오지 않아 길 가던 어른한테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그 날 시청 앞 광장에서 존슨 환영대회를 하느라고 차가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을지로6가에서 구로동 집으로 가려면 필히 시청을 통과해야 하는데, 시청을 중심으로 사람이 막혔다니, 이제 어떻게 집에 가냐? 하고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별 수 있나요. 그 쪼그만 놈의 머리에 떠오르는 방책이란 것이 그저 걷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여 터벅터벅 무작정 걸었습니

다. 을지로를 지나 시청에 이르자 그야말로 인산인해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손에 성조기를 들었던 것 같기도 하구요. 관제동원이었는지 아니면 자발적인 동참인지 광장은 사람들로 메어졌습니다. 그렇게 모인 숭한 인파를 간신히 뚫고 남대문쪽으로 걸었습니다.

그날, 벌써 37년이나 된 내 기억의 저 아득한 그 날, 나는 어찌어찌 용산인가 노랑진에서 밤늦게 영등포역까지 가는 마지막 전차를 탈 수 있었고, 통행금지 철폐하던 그 시절 자정이 다 되어야 집에 들어갔습니다. 내 작은 형님은 사정도 묻지 않고 그냥 밤들만한게 오밤중에 들어왔다고 뒤지게 혼만 내더군요. 억울하긴 했지만 어찌 설명을 해야 할지, 영 떠오르지 않아 일단 욕만 바가지로 먹고, 쫄쫄 주린 배를 잡고 거의 죽다시피 잠에 들어버린 기억만 남습니다. 존슨 덕분이었지요.

서울시청 광장에 얽힌 내 어린 시절의 기억이 새롭게 떠오른 까닭은 며칠 전 바로 그 시청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성조기를 들고 모여 무슨 구국기도회라는 것을 벌인 모습을 텔레비전 새소식 시간에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여름 경기도 의정부에서 미군의 장갑차에 어린 두 소

녀가 목숨을 잃은 사건을 계기로 미국을 규탄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전에 없이 높아가자 개신교의 연합단체가 주관한 집회였습니다. 나라를 걱정한다는 기도회에 미국 국기가 나부끼고 있다는 사실을 나로서는 좀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서양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좀 있을 수 없는 짓이 아닙니까? 그렇게 미국에게 잘 보여야 할 사연이 대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군요. 뭐라고요? 미군이 이 남한 땅에 주둔하고 있는 덕분에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고요? 새로 대통령 될 사람도 기어이 한마디 하더군요. "통일 이후에도 미군이 주둔하기를 바란다." 무지의 소치인지 아니면 너무 유식해서 그런지 통 이해가 안 됩니다.

지난해 초여름 내내 서울시청 광장에 '대한민국'이 울려 퍼졌지요. 나는 그 '대한민국'이라고 외쳐대는 젊은 청년들의 의식이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들이 외쳐대는 조국의 이름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하는 걱정입니다. 굳게 믿건대, 역사와 겨레의 앞날을 걱정하는 청년들이라면 고작 반쪽짜리 조국에 대한 자긍심에 눈이 멀어 환호하고 격정의 눈물을 흘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1987년 7월 10일, 신촌의 연세대를 출발한 대열이 시청앞 광장을 가득 메우고 그 군중의 일부가 시청 옥상에 이환열군의 죽음을 애도하는 조기를 걸었습니다. 대열의 곳곳에서 진정한 민중의 민주주의의 사회를 이루어 열사의 뜻을 바로 세우자는 구호가 광장을 울렸지요.

간헐히 바라건대 87년 여름, 그 광장에 울렸던 구호가 현실로 실현되어 내 어릴 적의 쓰린 기억이 사라지고 우리의 역사가 바로 쓰이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일까

원정대성사와 함께하는 visual 밀고 ~반야심경편제15화~

자, 상황을 한번 되돌려 볼까요?

앗! 에너지파동이 다시 만두가 되었네? 글.그림/정수일

다시 또 앞으로 돌려 볼까요?

에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그것참..

만두가 다시 에너지의파동으로 되기전에 먹어버릴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것은 고정불변하지 않고 항상 변화한다고 합니다.

"파동"이란 파도의 움직임처럼 퍼져나가는.. 즉 변화하고 있는것을 말하지요.

아닌데? 만두를 너무 오래두면 쉬어버리는덴...

무한한 에너지의 파동으로 모여진 만두 역시 쉬지않고 계속 변화한다합니다.

만두는 그냥 만두데...

자, 만두의 일주일후 모습을 볼까요?

우왕~! 만두에 곰팡이가 피었잖아, 난 영원히 변하지 않는게 좋아.

하하하, 그렇다면 떡잎을 각자님 혼자만 영원히 변하지 않고 늙지 않는다고 가정해 볼까요?

앗! 정말요? 그럴 수만 있다면요.

증조할아버지, 용돈좀 주세요, 헤헤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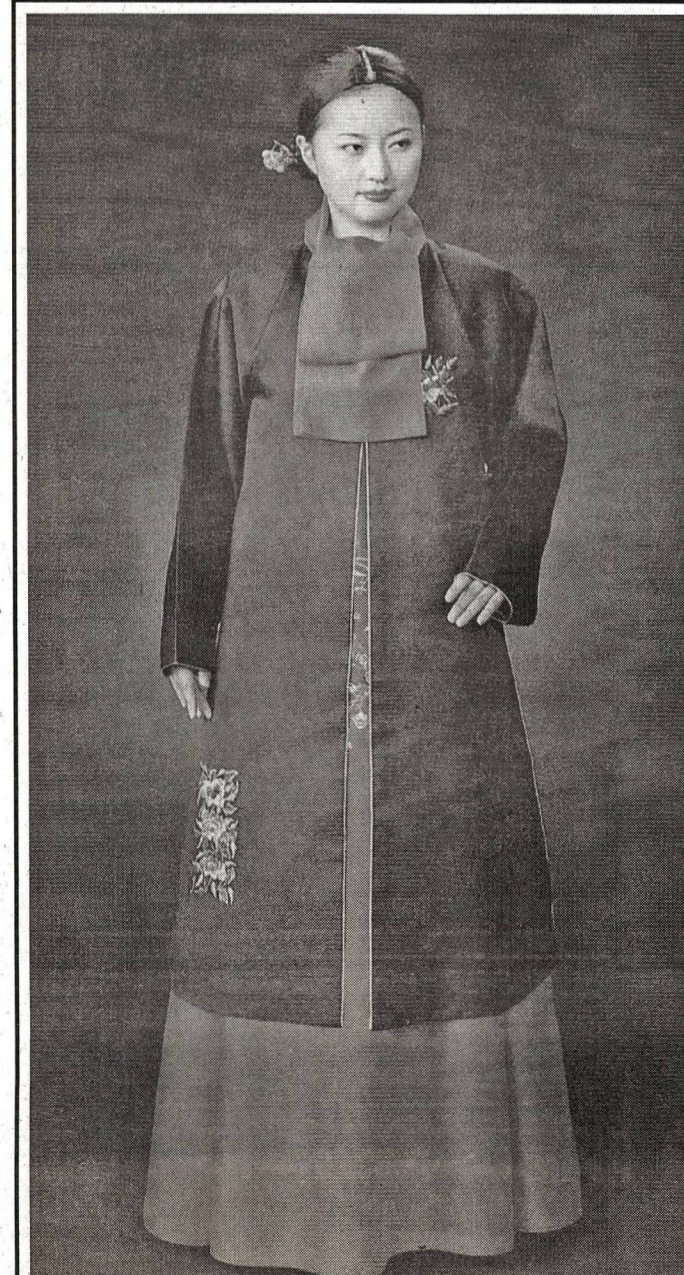
200년후...

으악~!

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색)란 변화의 연속(실체가 없는 공)일 뿐입니다. 즉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죠.

에구, 만두가 벌써 방귀로 변화되었군.

여보, 나 화장품 사줘요.



한복갤러리 숙진

HanBok Gallery
www.sookjin.com

다양한 색감과 디자인을 겸비한 숙진한복이 지역 신랑·신부한복을 선도합니다. 지역에서 접해보지 못한 아름다운 작품한복으로 예비신랑·신부님들에게 한차원 높은 결혼을 보장 드립니다.



※삼덕 소방서에서 일신학원 방향으로 약 30미터 올라오시면 2층에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1가 55-7
TEL: 053-257-4289 FAX: 053-256-0859
디자인실 : 053-253-9294



사원탐방은 중도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스승님, 신도분들의 따뜻한 이야기, 신앙체험담, 사원의 신도회 자랑 등 작고 아름다운 사원들을 들려드립니다. 이러한 사원들이 다른 사원 신도 여러분들과 교류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전화 : (02)552-1080 팩스 : (02)552-1082

부처님에 대한 신심과 구도의 열정은 식을 줄 모르고

진언수행의 오랜 전통의 맥이 이어져 서원성취 이루는 사원

부처란 깨달음이나, 마음을 보고 마음인 줄 깨달은 것이 부처이며,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중생이다.

부처는 허물이 없거늘, 중생이 전도하여 자심(自心)이 부처인 줄 알지 못하는 것이나, 자심(自心)이 부처를 찾지 않는 것이다. 불성은 스스로 있는 것이나, 스승을 인(因)하지 않으면 마침내 밝게 요달하지 못하니, 만일 깨달아 알지 못하거든 급히 선지식을 찾아 힘써 참구해야 한다.

성품을 보는 것이 부처요 성품을 보지 못하면 중생이다. 중생을 여의고 따로 불성이 있다고 한다면, 부처는 지금 어느곳에 있는가. 중생성(衆生性)이 곧 불성인 것이다.

부처에 있어서 더하지 않고 중생에 있어서 덜하지 않는 똑같은 마음이나, 부처님은 그 마음을 믿고, 중생은 그 마음을 믿지 못하는 것이니, 믿고 믿지 않는 것이 다를 뿐이요 부처와 중생은 둘이 아닌 것이다.



“부처님이 이곳 유서 깊은 관성사에 보내심은 더욱 본 성품, 본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고 한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황소바람을 채찍삼아

새벽 3시 매일 시작되는 새벽인데도 새벽 시작은 무거운 눈꺼풀을 치키면서 시작된다. 20여년이 넘게 같은 시간에 하루를 맞이하는데도 매일 시작되는 새벽은 각기 그 냄새와 모양이 달라 새롭고 경이롭기까지 한다. 남쪽 끝 통영 단항사에서 올라와서 그런지 서울의 새벽바람은 매섭기만 하다. 서울생활의 시작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비로자나 부처님이 알려

정진하여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려는 큰 뜻으로 이곳 낯선 곳 까지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관성사가 어떠한 곳인가? 큰 스승이었던 복지와 스승님과 기로스승인 경관스승님의 숨결과 손때가 곳곳에 배인 곳이 아닌가! 큰스승님의 뜻에 어긋남 없이 수행에 전념해야 하는데, 앞선 선배스승님을 생각하면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을 보여 해정스승님과 정법계스승님은 흐트러짐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는다. 어느덧 아침 해는 솟아오르고 긴 새벽불공을 혼자오인으로 마친다.

모든 중생이 진언의 공덕을 생각하며

아침 공양과 사원주위를 청소하다 보면 다시 오전 불공이다. 새벽불공에도 교도들이 한 둘 참여 하였지만 오전 불공에는 제법 교도들이 모였다. 교도들 사이에 가족들의 모습이 유난히 눈에 많이 띈다. 관성사 이타심 회장보살님 왈 “관성사에 다니는 교도들은 모두 남편과 가족들을 제도하고 심지어 출가한 사위와 며느리 그리고 손자 손녀들 까지 제도를 하는 것이 보편화 되었습니다.”고 자랑을 한다.

안을 찾는다. 가정의 문제에서부터 종단발전까지 주제가 딱히 정해져 있지 않다. 작은 무차법회를 하는 모양으로 높고 낮음 없이 대화하여 결론을 공유한다. 스승님의 말씀이 이어진다. “관성사에 부임하

할 때는 가르침을 생각하여, 효자가 부모를 생각하는 것같이 하며 사람들이 음식을 생각하는 것같이 해야 한다. 또한 스승은 불법에 의지해 마부가 말을 잘 다루듯 중생이 악을 짓지 못하도록 하고 스승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잘 가르쳐야 한다. 이렇듯 스승과 제자는 서로 깊이 믿어 상대를 자기처럼 여겨서 제가 못하는 일을 상대에게 요구하지 말며, 예의를 숭상하고 진리를 가지고 가르치며 온화하고 성실하여 서로 원망해 다투지 않아야 한다. 스승은 스승답게 제자는 제자다워 서로 비난한



다가 미워한다든가 하지를 말아야 한다.”고 하였 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만 비단 사제간의 관계가 아니라 사회에서는 선배와 후배, 가정에서는 남편과 부인, 아버지와 자식, 늙은이와 젊은이의 관계를 이야기 하는 것 입니다.”

참회로 새로운 날을 준비한다

겨울의 하루해는 무척 짧다. 스승님의 저녁불공은 참회가 주축이 된다. 물론 모든 불공의 시작은 참회에서 시작되지만 저녁불공에서는 하루의 일과를 반성하고 참회하며 새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해정정사님과 정법계전수님은 말씀하신다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를 하면 내 업장만 녹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업장을 녹여준다. 참회와 말로 만인을 편하게 해주고 수행을 완성케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참회는 하심에서 시작을 합니다. 마음공부하는 사람을 하심을 해야 합니다. 내똥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존경하다 보면 자신도 존경을 받게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해정정사님, 정법계전수님의 말씀에 한없는 자애(慈愛)와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마음을 가슴 가득 담아서 돌아왔다.

주소 : 서울 종로구 행촌동 210-655
전화 : 02)736-0950



주시는 걸까? 수은주는 영하 20도로 내려가고 지금 까지 느껴보지 못한 매서운 칼바람과 추위가 서원 당 문틈을 타고 황소바람처럼 밀려 들어와 새벽정송의 자세를 여미게 만든다. 벌써 20여년을 한결같이 사본정진속에 마음 닦는 진언수행을 하는데 그놈의 마음은 가물가물 한 것이 진언 수행의 멀고 험한 길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한다. 오늘 하루도 작은 서원당에 몸을 의지하고 움마 나반메훈 목자진언에 육신을 던져 새벽정송으로 마음에 남아있는 탐·진·치(貪·瞋·癡)의 잔상을 뒤엎으며 아침의 여명을 맞이한다.

운 자, 그렇지 못한 자, 과학자, 종교가, 철학자등 일체 중생이 누구나 다業報 중생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보는 견해도 역시 업안(業眼)으로 밖에는 보지를 못할 또한 사실이고, 우리 일체 중생이 이 업안(業眼)을 해탈하여 진리의 심안(心眼)으로 세상을 보고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진리의 법안(法眼)을 만들려면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하는 심성수양(心性修養)이 필요하지요. 이상하고 모호하게도 성품은 각자가 모두 지니고 있으면서도 중생의 탁한 욕안으로는 성품을 보지 못하고 고해(苦海)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년을 절에 다녀도 제대로 한번 살아 보겠다는 마음가짐이 없는 사람에겐 아무리 법문을 해도 소용이 없다 마찬가지로 출가자는 출가자로서, 또 재가자는 재가자로서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려는 노력과 실천이 따라야 한다 무엇을 하더라도 부처님께 절하듯이 하심과 진실된 마음, 성의있는 마음이 중요

해정정사. 정법계 전수님의 평소 가르침이다. “흔 지만의 수행과 불공 진언연송이 아닌 가까운 가족 모두 나아가 주위 친척, 더 나아가 모든 중생을 제도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중생들이라 조금만 방심을 하면, 진언연송에 회의를 오고 나태와 마장이 항시 주위를 맴돌며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그렇지만 가족이 한마음이 되어서 수행을 하면 금강같이 단단해져 온갖 마(魔)의 유혹을 견뎌 진아(眞我)를 볼 수 있습니다. 혼자만 열심히 불공해서 선인(善因)을 맺었지만 가까운 가족들 중 한사람이라도 선인(善因)을 맺지 못하면 가슴이 아프듯, 그래서 가족들과 한길을 간다는 것은 큰 복을 짓는 것이며 좋은 인연을 맺는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젊은이들의 생명에 대한 모습을 한번 봅시다. 좋은 사주를 갖기 위하여 미리 사주쟁이한테 사주를 받아놓고 아기를 낳는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웃음이 나고 미련한 이야기 인니까. 그렇다고 태어날 아기가 정말 좋은 인연을 맺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좋은 인연은 태중에 아기가 있을 때 부모의 마음 공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조용히 본성(本性)다운 불공은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가장 좋은 태교입니다. 태어날 아기가 과거 많은 악업을 가지고 있다 해도 부모의 지성불공을 모든 악업(惡業)을 선업(善業)으로 물길 돌리는 것입니다.” 스승님의 법문이 한참이다. 법문을 듣고 있노라면 저절로 고개가 끄덕 끄덕이며 법문속에 동화되어 파문한다.

풍자와 해학으로 교도들과 늘 대화

아침부터 꾸물한 날씨가 급기야는 하얀 눈이 되어 흩날린다. 관성사는 사랑방의 냄새가 나는 곳이다. 늘 스승과 교도가 허물없이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

안공하고 나면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이 들게 되어 마음이 상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실천서원인 인욕과 하심으로 진애심과 원망심을 없애고... 하는 문구가 없었다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다”며 “옛날 법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법을 교조적으로 해석하고 교조화 시키면 그 법은 가장된 법입니다. 법의 기본 정신은 바꾸지 않고 시대와 사람의 변화에 맞는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시대와 변화에 조응하지 못하는 법은 법의 가치를 잃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시내 속도가 평균 60km라 하자. 세월이 흘러 생활이 윤택해지고 생활수준이 높아져서 자동차 수가 늘어나서 60km의 속도를 내지 못하는데 그 법을 고수한다고 하면 도로는 엉망이 되고 사고가 엄청 일어날 것입니다. 40km, 30km로 규정속도를 줄여서 도로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나 국가도 마찬가지로 종단의 종헌 종법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종단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의 생각은 다양합니다. 젊은 사람이 있으면 나이든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그보다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사람과 생각을 화합과 조화로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조화와 화합이 중요하 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스승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스승을 보았을 때는 곁에서 섬기고 보지 못

